

지역경제 활력... 대규모 소비축제 '부산브랜드페스타' 개최

지역 중·소상공인 우수제품 홍보 제품 인지도 확보, 판로 개척 지원 175개 사 참여, 257개 홍보 부스



부산시가 24~26일 사흘간 벡스코에서 '2022 부산브랜드페스타'를 개최한다. 사진은 2021년 행사 모습. /부산시

부산시가 '2022 부산브랜드페스타'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4~26일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2 부산브랜드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알리고 판매하여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대규모 소비축제행사이다. 후원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동남권원자력연구원 등 지역 공공기관도 참여해 지역기업 살리기에 힘을 모은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부산대표 기업 참여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2 부산브랜드페스타'에는 지

역기업 175개 사가 참여, 257개 홍보 부스를 만들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우수제품을 판매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행사, 할인 판매행사, 현장 라이브커머스, 캐시백 이벤트 등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혼자 또는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방문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부

산의 대표기업들이 새롭게 참가하여 '부산브랜드페스타'를 꾸밀 예정이다.

지역기업 홍보·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 '라이브커머스' 등 특별판매전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4일 열리는 '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기관 48곳과 기업 90개 사가 참여하고, 상담장 내 조달청 공공조달 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등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행사기간 내내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라이브커머스'도 열리며, 네이버 쇼핑라이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보며 구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4일 오후 2시 30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40여 곳과 지역 경제계가 함께 하는 '부산 브랜드 구매 확산 선포식'도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경영자총협회, 지역건설협회, 에어부산, 대선주조, 서원유통 등 지역 경제계의 다양한 기관들이 지역제품 구매 확산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을 선언한다.

/부산=정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숲맑은 담양 쌀 전남 고품질 브랜드 평가 '최우수'

담양군에서 생산된 '대숲맑은 담양 쌀'이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명품 쌀 생산·유통을 견인할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매년 10개 브랜드를 선정해 지원·홍보한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개의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평가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판매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구입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품종 혼합율, 품질, 품위, 식미, 중금속·잔류농약검사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됐다.

/담양(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시 온실가스 저감시설에 탄소포인트

광주광역시시는 지난해 전기·수도·가스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저감시킨 27개 우수시설에 총 540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우수시설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학교, 상업시설, 배출시설 등 599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에너지 평균사용량 대비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률(60%)과 감축량(40%)을 평가해 최우수 9곳, 우수 9곳, 장려 9곳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총 540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업에 재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선순환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울주군 '영남알프스 등산교실' 운영

울산 울주군이 오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에서 '2022년 영남알프스 상반기 등산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등산과 산악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해 산악사고 예방과 등산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산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영남알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복합웰컴센터와 영남알프스에서 진행된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부산관광공사는 25일부터 '2022 싱가포르 MICE 업계 초청 팸투어'를 개최한다.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공, 싱가포르 MICE 초청 팸투어

교류 증진, 인센티브 단체 유치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2022 싱가포르 MICE 업계 초청 팸투어'를 개최한다.

이번 팸투어는 제주항공의 부산-싱가포르 직항노선의 운항 재개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 완화를 계기로 두 도시의 MICE 교류 증진과

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위해 기획됐다. 부산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 부산울산지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팸투어단은 싱가포르 MICE 여행 업계 관계자 10명·언론인 4명 등으로 구성되며, 25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해 부산에서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제주도로 이동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시작

전남 섬에서 '봉사 대장정'

6개 시군 9개 섬에서 팀 꾸려 진행 2년간 총 23개국 111명 청년 동참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25개국 청년 100명이 전남 섬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전남 갯벌의 가치를 확산할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2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국내외 청년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3회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를 오는 8월 24일까지 보성·신안·여수·진도·완도·고흥 6개 시군 9개 섬에서 일자별 각 9명에서 최대 15명으로 팀을 꾸려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홍보·보존 캠페인, 섬마을 학교 연계 글로벌 문

화 캠프,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등 섬주민과 함께하는 다국적 봉사활동에 나선다.

'국제워크캠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유럽 각국 청년이 주축이 돼 만든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현재 87개국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청년이 모여 함께 생활하며, 봉사활동 등을 하는 국제교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전남도는 워크캠프를 통해 지난 2년간 총 23개국 111명의 국내외 청년들과 전남 9개 섬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마을 경관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 섬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창녕군, 농촌 활성화 위한 협약공모 선정

새로운 창녕 디딤돌 역할 기대

창녕군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창녕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2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거버넌스 제도다.

군은 농촌협약의 참여·전제 조건인 ▲마을만들기 지방이양사업 예산 확보(27억 4700만 원) ▲농촌협약 위원회 구성 및 운영(농촌협약위원회·행정협의회) ▲전담부서(농촌개발과·농촌개발팀) 신설 ▲중간지원조직(창녕



창녕군이 2023년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창녕군

군 농촌협약지원센터) 신설 등을 완료했다.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남부생활권 활성화 계획으로 남부 7개 읍면(남지, 계성, 영산, 장마, 도천, 길곡, 부곡)에 총 사업비 4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신안군 홍도서 '섬 원추리 축제' 개최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 마련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관광지로 손꼽히는 홍도에서 '섬 원추리 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홍도 섬 원추리 축제라는 주제로 7. 8.(금) ~ 7. 17.(일)까지 개최되는 섬 원추리 축제는 홍도 1구~2구 마을의 육상 포토존과 신비로운 홍도의 해안선을 따라 피어난 원추리 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식물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홍도원추리'는 다른 원추리에 비해 꽃이 유

난히 크고 아름다우며 질감이 고와 관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자생식물로서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홍도의 인문환경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육지 주민이 보릿고개를 보낼 때 홍도 주민은 원추리 잎으로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견뎌 냈으며, 원추리 꽃이 지고 나면 원추리 잎을 잘라 새끼를 꼬아 띠 지붕을 만들고, 배 밧줄, 광주리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도구를 만들어 쓰면서 살아왔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한국남동발전 주요 간부 성과급 반납 동참

한국남동발전은 경영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해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의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 자율반납에 동참한다.

남동발전은 에너지 가격폭동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전력그루프사 재무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성과급 반납에 뜻을 모았다.

현재 남동발전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합동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비상경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